

23.

GS 시험인증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 척박함이란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나친 과당경쟁과 연구개발 투자 부족은 전반적인 품질 저하를 야기했고,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피 현상마저 벌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에 불과했으며, 외국기업에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당한 내수시장의 점유율 또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대 우리나라 산업에 불어닥친 ‘벤처붐’을 타고 탄생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대부분은 척박하기 짝이 없는 환경을 딛고 혼난한 개척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사라져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나온 소프트웨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를 초래했다. 이러다 자칫 ICT산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들려오기 시작하자 정부는 국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인 GS인증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는 GS 인증제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TTA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TTA는 수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과정을 거쳐 2001년 1월 사무용·통신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GS시험인증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3년 1월 소프트웨어 전 분야로 인증 범위를 확대했다. GS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기간 동안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GS인증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분리발주 대상 인증제품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업체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인증제도로 성장했다.

현재 TTA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GS인증의 제도적 혜

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설명회, 지역별 GS인증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비용의 30%를 할인하고 있으며, TTA저널, World IT Show, 소프트웨이브 등 각종 매체와 전시회를 통해 인증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TTA GS시험인증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 시행 초기 GS인증은 미미한 신청 실적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는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의 낮은 품질 인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GS인증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발기업들은 GS인증 취득이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애국심

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보다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증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TTA는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신력 있는 GS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 및 소프트웨어 부문별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험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VeriTest, 독일의 TÜVIT 등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과 다양한 기술교류, 상호인증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제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에 따른 품질 평가 체계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인증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여나갔다.

특히 실제 운용환경과 동일한 환경에 기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이 제품 각 기능에 대해 시험하도록 한 TTA의 GS인증은 국산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TTA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GS 시험인증의 지원을 받은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GS인증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TTA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에게 GS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이브’를 통해 GS인증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본·싱가포르 등지의 해



●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시설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AFSIS-6) GS 인증서 수여(2012. 4. 26)

외 전시회에서도 GS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GS인증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국의 인증 체계에 반영하기도 했다. 어느덧 18년의 역사를 지니게 된 GS인증은 국내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현재도 GS 인증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R&D 결과물의 완성도 평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으로 그 활용 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GS 시험인증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으로 만들겠다는 TTA 직원들의 열의와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제4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시상식(2017. 12. 1)